



코로나·高물가 영향 식품업계 '양극화'

곡물 수입단가 14년만에 최대... 中企 10곳 중 8곳 "경영 악화"
대기업 물량 선점... 소규모 업체 "주문 줄고 인상분 미반영"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식품 업계는 완전히 ‘양극화’ 됐습니다.” 최근 농산물부터 가공 식품까지 식품 전반에 걸쳐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고물가로 수요가 감소한 데다 그 수요마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 대기업으로 집중돼 지역 식품 관련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간한 ‘국제곡물 7월호’에 따르면 3분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수입)는 184.8로 2분기(4-6월)보다 13.4%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곡물 수입 단가 상승세는 지난 2020년 말부터 7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수입)도 전분기

대비 12.5% 오른 178.4로 추산됐다. 두 지수는 이미 올 2분기에 2008년 4분기(10-12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입 곡물가격 상승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3-6월 구입 물량이 시차를 두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수입 곡물 가격이 오르면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품·외식업계, 축산 농가의 사료값도 오를 수밖에 없어 식품 제조 기업들의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213개 식품 제조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한 ‘수입농

산물가 급등에 따른 식품 제조 중소기업 실태 조사’에서 식품 제조 중소기업의 82.6%는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 73.7%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4곳 중 1곳(26.3%)은 영업이익이 20% 이상 줄어든 것이라 응답했다.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10% 이상 20% 미만 증가할 것이라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곳 중 1곳 이상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원가 증가분보다 적게 인상하거나 계획이 없는 기업이 73.2%를 차지했다. 인상 계획이 없

는 이유는 타사 대비 경쟁력 하락 우려(58.6%), 납품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24.1%), 경영여건상 감내 가능(17.2%) 순이었다.

지역 식품 관련 중소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광주 식자재납품업 관계자 이모(42)씨는 “최근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식당에서 납품 물량을 3분의 1 가량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유를 물으니 오르는 외식비에 손님이 감소한 반면 식재료 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식용유 18ℓ가 지난해만 해도 4만8천원에 거래됐으나 현재는 7만

8천원으로 2배 가량 올랐고 밀가루도 연초 대비 40%, 무도 개당 600-800원 선에서 3천원에 육박하는 등 채소도 거의 2배 수준으로 경증 뒤편”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식자재 납품업도 큰 규모 업체의 경우 물량을 선점해 상대적으로 더 싸게 팔아 소규모 납품업체는 물건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학교 급식은 납품 단가 변동 또한 쉽지 않아 기존 가격에 맞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가 변동을 요구해도 반영이 쉽지 않고 반영이 된다고 해도 2-3개월 걸려 요즘 같아서는 업체 운영 자체가 흔들거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식자재를 납품받아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주 두부 제품 생산 업체 관계자 박모(56)씨는 “수입 콩 가격은 물론 지난해에 비해 소포제 12kg가 8만5천원에서 15만원으로, 간수 20kg가 1만7천원에서 1만9천원으로 오르는 등 원부자재값이 모두 증가한 데 반해 막상 제품 가격은 한 번도 못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올라 식당에서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는 박리다매로 별 타격이 없으나 소규모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반부격차도, 양극화도 심해질 대로 심해진 상황이다”고 울상을 지었다.

/양서원기자



3년 만에 열린 '장흥 물축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표적 여름축제인 '전남 장흥 물축제'가 3년 만에 지난달 30일 개막된 가운데 살수(水)대처 기술 퍼레이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물 싸움을 즐기고 있다. 지상 최대의 물싸움장을 연출하는 물 축제는 오는 7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래리기자

태풍 '송다' 간접영향 광주·전남 최대 200mm 비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2일까지 광주·전남엔 최대 200mm의 비가 내리겠다.

▶관련기사 2면

3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구례·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성삼재(구례) 95.0mm, 벌교(보성) 81.0mm, 광양백운산·석곡(곡성) 69.5mm, 거문도 62.5mm, 순천 57.4m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이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 1일 오전까지 50-100mm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일까지 광주·전남의 예상 강수량은

50-100mm 사이지만, 전남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0-200mm 이상으로 예보됐다.

태풍은 1일 이른 오전 사이 서해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상의 태풍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된 따뜻한 수증기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형성됐다”며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기자

민선 8기 광주·전남 현안문제 '합의'

민선 8기 처음으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나주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군공항 이전 등 현안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최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을 협약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나주시는 연 50억원

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성과확산계획과 혁신도시육성계획을 두기로 했다.

발전기금과 더불어 3개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저해 요인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은 2006년 나주 지역 혁신도시가 전국 유일의 시도 공동 혁신도시로 선정되고 같은 해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나주시장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를 재원으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2019년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합의를 통해 국책 연구기관에 공동 용역을 시행했으나, 발전기금 조성 규모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5월21일 3개 지자체장 후보가 만나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나주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연 50억 출연 약속 군공항, 기부 대 양여·특별법 제정 투트랙 추진

상생발전협약식'을 갖고 산업·교통·환경 분야의 주요 상생과제를 실무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 광주, 전남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민선 8기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군공

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특별법 제정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이전지역 지원대책 마련 등 범정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절차 진행과 특별법 제정 등 투트랙 전략 추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군 공항의 면적 조정 및 완충지역 확

대, 훈련기능 조정을 국방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현안문제가 이번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Today	
강시장, '트랩' 추진 의지 확고	3면
조선대이사회, 총장 징계 논란	7면
사상최대 '순이익' 낸 광주은행	12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수록

2022 광주·전남지방자치총람 발간!

민선 8기 광주·전남의 미래비전을 담은 유용한 자료집
당선인 및 가족, 지인에 소장가치 높은 선물로 추천

판매중!!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공약과 비전을 총망라해 집대성한 700여 페이지 분량.
- 광주매일신문이 야심차게 제작한 지방자치총람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지방자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길라잡이.
- 2022광주·전남지방자치총람은 광주매일신문이 유일하게 제작한 지방선거 자료집.

▶ 구입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 입금계좌 : 광주은행(016-107-323257 : 예금주-㈜광주매스컴)
▶ 정 가 : 20만원